

과기정통부, 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강화

- 박물관, 도서관, 건물내 지하상업시설, 농어촌 등 취약지역 평가 강화 및 실제 불편 발생지역을 평가대상에 반영
- 고속철 구간의 공동망 2.0을 적용한 설비구축 및 품질 면밀점검
- 품질개선기준 상향(12Mbps→100Mbps)을 통한 사업자의 투자 노력 강화
- 5G SA(Standalone, 단독모드) 평가지표 개발하여 평가 체계 마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‘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’을 마련하고,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, LTE, 유선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, 접속가능비율, 전송속도 등 품질을 측정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.

올해 5G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같이 총 600개소에 대하여 평가할 계획으로, 그 중 특히 실내와 옥외지역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. 실내시설은 총 물량의 절반인 300개를 배정하되, 구조적이거나 인구밀집 특성상 취약 가능성이 큰 상업,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, 시민단체 제보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. 아울러 건축물 내 지하상업시설, 농어촌 실내시설을 새로운 평가유형으로 포함하고,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평가하여 인빌딩 투자 유도를 강화할 계획이다. 옥외지역은 공동망 평가물량을 지난해 60개에서 102개로 대폭 확대하여 도농 간 품질격차를 줄이고 공동망 투자 유인을 강화해 나간다.

또한 **현행 품질미흡 기준***은 유지하되, 이용자 체감 품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**개선 권고기준을 추가 도입**한다. 100Mbps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% 이상인 지역을 ‘**품질개선 권고지역**’으로 지정하여 **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개선 노력**을 유도할 계획이다.

- * 5G 품질미흡 : 기준 속도(12Mbps)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% 이상 측정되는 지역
- 품질개선 권고지역 : 기준 속도(100Mbps)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% 이상 측정되는 지역

고속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**경부·호남선의 품질문제 해소**를 위해 공동망 2.0 기술*을 적용하여 추진 중인 **설비 구축 완료 일정****에 맞춰 **품질개선 정도**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.

- * (현재) 한 사업자(A)의 장비(Radio Unit(안테나), DU)를 타사(B, C)가 공동 이용 → (공동망 2.0) B·C사 RU와 A사 DU를 추가 설치·연동하여 용량 확대 및 가입자 분산 수용
- DU(Digital Unit) : 기지국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비로, 무선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고 네트워크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담당

** 경부·호남선 상시 품질미흡구간 : 1차 4월, 2차 9월, 同 노선 전구간 : 12월

한편, 올해 **통신사의 5G SA(Standalone, 단독모드) 전환에 대비**해서는,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하여 **SA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측정방법**을 개발할 계획이다.

지난해 도입한 **서비스별 요구속도충족률*** 발표와 5G·LTE 동시측정 방식은 유지한다. **요구속도충족률**은 실제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별 필요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. 또한 5G·LTE 동시측정은 LTE 무선자원을 5G와 LTE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한 방식이다.

- * 전체 측정값 중 요구속도 이상 측정된 비율
- (웹검색/5Mbps) 웹 검색 등 텍스트·사진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통신 환경
- (SNS샷폼/20Mbps) SNS 샷폼 등 짧은 영상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통신 환경
- (영상회의/45Mbps) 영상회의 등 다수 이용자가 함께 협업도구를 사용하는 통신 환경
- (고화질 스트리밍/100Mbps) 4K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재생 등을 모바일로 이용하는 통신 환경

지난해 평가 결과 확인된 5G 접속 미흡 시설과 5G, LTE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해서는 **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**하고, 종합적인 점검결과는 올해

품질평가 결과와 함께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.

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“통신서비스 품질은 이제 단순히 속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”라고 강조하며, “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이용자 평가에 참여하려는 경우,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앱(NIA 배포앱 활용)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(speed.nia.or.kr)를 통해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.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측정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월 5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장호 (044-202-666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섭 (044-202-6666)
관련 기관	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	책임자	팀 장	정운영 (053-230-1721)
		담당자	수 석	전용근 (053-230-1728)
			선 임	허정원 (053-130-1724)



붙임

유·무선 인터넷 속도측정 방법 안내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

유·무선인터넷 속도측정 도구(웹/앱) 안내

유선인터넷 속도측정 웹사이트

- 1 speed.nia.or.kr 사이트 접속
- 2 통신사 가입상품 지역 선택 후 속도측정 클릭
- 3 이용 중인 유선인터넷 상품의 품질 수준 확인

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어플(앱)

- 1 NIA의 '무선인터넷 속도측정' 어플(앱) 다운로드
- 2 어플(앱) 실행 후 지역유형 선택 후 속도측정 클릭
- 3 이용 중인 무선인터넷 상품의 품질 수준 확인